

# 더민주 “與와 일대일 구도로”...국민의당 “호남 녹색바람 복상”

## 호남 대전 끝내고 수도권 세몰이

김종인 박빙지역 집중 지원 유세  
“경제 심판”...새누리에 공세 집중  
국민의당 “호남 주도권 잡았다”  
호남중진들도 출장 지원 총출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주말과 휴일 호남 총력전을 벌인데 이어 이번 주는 수도권에서 세몰이에 나선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가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을 돌며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호남지역 지도부까지 상경해 수도권 출장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지지세를 본격적으로 복상시키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4일 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도 더민주 입장에서 ‘경합’으로 판단하는 지역을 골라 지원 사격을 집중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더민주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 아래 여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경제심판론을 다시 꺼내들고 ‘새누리 대 더민주’의 일대일 구도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당을 향한 공격은 줄었다. 아권연대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당을 공격해 제3당의 존재감을 키워주기 보다는 새누리당에 공세를 집중시켜 ‘전국싸움’에서 여당과 일대일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민주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뒷발 호남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에서 여야 일대일 구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생각보다 차갑다”며 “전통적인 야당의 선거전략은 호남에서부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수도권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열린 김병관·김병욱 후보 지원유세에서 당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여권이 반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수도권에서 여당에 맞서 혈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도 제1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당분간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과의 접전지역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연 의원 등 호남에 지역구를 둔 지도부가 이번 주중 수도권 출장 지원 유세에 나선다.

호남에서의 아권 주도권 경쟁에서 대세를 잡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지세를 수도권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추가 당선자를 내지 못할 경우 자칫 ‘호남 자민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호남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유세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주말 안 대표의 유세를 계기로 호남 판세가 어느 정도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적으로 호남 지지자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쳐온 야당 정치지형은 고려할 때 호남 지도부의 지원 유세가 호남발(發) 지지세를 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민의당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현역 의원들의 저력과 신인들의 참신함을 당 지도부와 결합시킬 경우 현재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주중 이번 수도권에서 더민주와의 당 지지를 격차도 상당폭 좁혀질 것이라는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에서 시작된 녹색바람이 북상하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광대원 후보의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대권병 걸렸다면 후보 양보 했겠나”

관훈클럽 토론...“호남 반문 정서 관련 文 전대표 사과 선행돼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4일 호남에서의 반문(반문제인) 정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예둘러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광주에서 문 전 대표를 오라는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저는) 정치 시작한지 3년 반 동안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사과드리고 하나라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더민주의 패권세력이 친노라고 봐야 하는지는 질문에 “공전결과를 보면 한 정당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정당이고 다른 정당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정당으로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

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대권병’에 걸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권병 걸린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겠나”며 2012년 대선 때 후보직 양보를 거론한 뒤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다. 그래서 대권병이라는 말은 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권 연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당대당 연대는 김종인 대표가 먼저 거부했다”며 “(더민주) 처음부터 저의 당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들이 실패하다 보니 이제는 패배의 책임을 돌리려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 “최소 20석, 최대 40석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결과가 기대치에 못미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접전지역 잇단 러브콜...박지원 지원유세 ‘바쁘다 바빠’

### 광주·익산 등 연일 광폭 행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목포시)이 호남권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주 광주 광산읍과 서갑은 물론 전남 영광, 함평, 나주, 화순, 해남과 전북 익산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선거 활동도 바쁜 상황이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접전 지역 후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일 분초를 아끼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의 지원 유세 요청은 호남을 넘어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들에게서도 쇄도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박 의원에게 지원 유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가 호남 정치의 상징성이 큰 데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선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전남 지방의원들의 국민의당 입당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국민의당 후보 지원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번 주부터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부권에 이어 광양, 여수 등 동부권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남·진도·완도 등 전남 일부 접전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박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더민주 “광주, 문재인 지원 요청 후보 한명도 없다”

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국민의당과 격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선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유세에 대해 거리 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선거구에서 박빙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반문(反 문재인) 정서 자극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택 더민주 광주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유세와 관련 “현재까지 광주 총선후보 8명 중 지원을 요청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통선대위 시의원 대표인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구 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문 전 대표의 방문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요청이 없는 데 굳이 (광주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대위는 최근 회의에서도 문 전 대표의 지원 요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역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적이었다고 다른 시의원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라식 vs 라섹

##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